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영웅 서사구조에 관한 연구

박찬익

청운대학교 멀티미디어학과

e-mail:butterfly9@chungwoon.ac.kr

A Study on the Heroic Narrative Structure of the Drama ‘Strange Lawyer Woo Young-woo’

Chan-Ik Park

Dept. of Multimedia Science, Chungwoon University

요약

서양에서 연구되고 정리된 영웅서사 구조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이 가지고 다루었는데, 우리나라의 고전이나 설화, 신화, 고대소설 등에 나타나는 영웅이야기도 큰 틀에서 보면 동일하다는 연과 결과물들을 보여주고 있다. 영웅신화는 어려움에 처한 영웅이 고난을 헤쳐 나가면서 결국은 추구하는 바를 성취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다든 점에서 보는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대리 만족과 성취감을 제공한다. 이 연구의 사례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또한 이런 성격을 잘 보여준다. 이렇게 영웅신화의 구조를 드라마의 주인공에게 구체적으로 형상화 시키면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주인공의 모습에 영웅의 이미지가 투영되어 시청자의 관심과 호응을 얻게 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영웅신화 구조가 적용된 드라마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만은 아니다. 고대의 신화나 이야기에서 만들어진 영웅신화 구조가 현대의 이야기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서사구조의 일부가 변형된 영웅신화 구조를 가지는 드라마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런 부분 변형된 서사 전개 양상들까지 포함하여 조사를 한다면 훨씬 더 많은 드라마가 이런 영웅신화 구조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많은 이야기를 분석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구조가 시청자들에게 공감을 얻고 높은 시청률을 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 서론

2022년 6월 케이블 채널 ENA에서 방영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넷플릭스를 통해 서비스 되면서 국내와 해외 각국에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성공을 거둔 K 드라마로 평가된다. 국내 시청자에게도 생소한 ENA채널을 통해 방송된 이 드라마는 첫 회에 0.984%의 시청률을 기록해 별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이후 입소문을 타면서 급격한 시청률 상승세를 보이며 마지막 회 시청률은 17.534%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또한 넷플릭스 영어와 비영어권 시리즈 통합 1위를 차지하면서 ‘우영우’ 신드롬을 불러오기도 했다[1].

드라마의 주인공 우영우는 자폐스펙트럼이라는 장애를 가졌지만, 서울대 로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유명 변호사 사무실에 신입 변호사로 입사한다. 이후 각종 사건의 변론을 하는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적 시선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다시 생각하게끔 만들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분석하는 여러 연구가 장애를 가진 사람의 불리한 조건이 장애 자체가 아니라 장애인을 바라보는 차별적 시선과 사회적 인식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

으나 본 연구는 이 드라마의 성공 요인으로 주인공의 서사가 영웅신화의 전개 구조로 있다는 것에 주목한다. 영웅신화의 전개 구조는 세계 각지의 영웅 이야기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영웅의 일생에 관한 이야기 구조이다. 이들 영웅은 비정상적으로 출생을 하고 버려지지만 고난을 극복하고 다시 귀환하여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을 보여준다[2].

현재 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주인공 우영우를 자폐스펙트럼이라는 장애를 가진 인물로 설정했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영웅신화의 구조에 그대로 부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영웅신화의 구조가 어떤 측면에서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 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영웅신화의 서사구조

서양에서는 영웅신화의 서사구조에 대한 연구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신화학자인 조세프 캠벨(Joseph Cambel)과 라글란(Lord Raglan)은 세계 각지의 영웅신화들을 연구하면서 신화의 주인공들이 지역이나 시대는 달라도 유사한 서사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다.

특히 캠벨은 영웅신화 전설에서 영웅의 유형을 분류하고 어떤 단계를 거쳐 영웅이 만들어지는지를 순서별로 정리하였다. 이를 크게 3단계로 나누면 출발-입문-귀환의 과정으로 요약된다[3].

캠벨은 3단계의 과정을 각기 세분화하여 총 16개의 단계를 만들었다. 헐리우드의 이름있는 스토리 컨설턴트인 크리스토퍼 보글러는 자신의 저서 ‘작가의 여행 : The Writer’s Journey’에서 캠벨의 16단계 영웅의 모험을 정리하여 12단계로 도식화 하였으며 이를 3막 스토리 구조로 표현하였다[4]. 표 1.은 캠벨과 보글러의 이론을 정리하여 비교한 것이다.

[표 1] 캠벨의 영웅서사 구조와 보글러의 3막 스토리 구조

캠벨의 영웅신화 구조	보글러의 3막 스토리 구조
출발	제1막
- 영웅에의 소명 - 소명의 거부 - 초자연적인 조력 - 첫 관문의 통과 - 고래의 배	- 일상세계 - 모험에의 소명 - 소명의 거부 - 정신적 스승과의 만남 - 첫 관문의 통과
입문	제2막
- 시련의 길 - 여신과의 만남 - 양육자로서의 여성 - 아버지와의 화해 - 신격화 - 궁극적인 흥익	- 시험, 협력자, 적대자 - 심연 가장 깊은 곳으로의 접근 - 시련 - 보상
귀환	제3막
- 귀환의 길 - 부활 - 영약을 가지고 귀환	- 귀환의 길 - 부활 - 영약을 가지고 귀환

서양에서 연구되고 정리된 이런 영웅서사 구조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다루었는데, 우리나라의 고전이나 설화, 신화, 고대소설 등에 나타나는 영웅이야기도 큰 틀에서 보면 동일하다는 연구 결과물들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서양에 비해 우리나라의 영웅신화 구조는 비극적인 죽음이 없다는 것 큰 차이점이라고 하겠다.

조동일은 자신의 저서 ‘민중영웅이야기’에서 한국 영웅신화의 서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1) 고귀한 혈통을 지님
- 2) 비 정상적으로 잉태되거나 출생함.
- 3) 범인과는 다른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남.
- 4) 어려서 위기를 겪거나 기아가 되어 죽을 고비를 맞음.
- 5) 조력자, 양육자를 만나 위기를 벗어남.
- 6) 다시 위기를 만남.
- 7) 위기를 투쟁으로 극복해 승리가 됨[5].

이 영웅신화 서사에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대입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3.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보여지는 영웅신화 구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주인공은 자폐스펙트럼이라는 장애를 가진 여자 변호사다. 어머니는 누구인지 모르고 아버지와 단 둘이 살고 있다. 아버지는 서울대 법대를 중퇴하고 김밥집을 운영하면서 우영우를 키웠다. 극이 전개되면서 우영우의 어머니는 국내 유명 법조가의 상속녀이고 대학생 때 가난하지만 똑똑했던 우영우의 아버지를 만나 임신을 하게 되지만 출산 후 아이를 버리고 유학을 가게 된다. 결국 우영우는 고귀한 혈통의 어머니가 혼외임신으로 생기게 된 사생아이고 어머니도 모르게 버려지는 비극의 주인공이 된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면 “1) 고귀한 혈통을 지님”과, “2) 비 정상적으로 잉태되거나 출생함”이라는 내용과 부합된다.

극 중 우영우는 극단적 장점과 약점을 동시에 가진 인물이다. 자폐스펙트럼이라는 흔치 않은 장애를 가졌지만 모든 법조문과 판례를 정확하게 외우는 비상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6]. 이는 “3) 범인과는 다른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남”이라는 내용을 충족시킨다.

우영우는 어릴 때 자폐스펙트럼 장애로 여러 번의 위험한 일을 겪지만 이를 “4) 어려서 위기를 겪거나 기아가 되어 죽을 고비를 맞음”에 대입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영웅서사 구조의 위기는 우영우가 서울대 로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하지만 장애자라는 이유로 어떤 로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사회성의 결여로 봐야 한다. 우영우는 어렵게 취업을 하지만 직장에서의 모든 것들이,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위태로워 보인다. 이런 위기는 우영우 아버지의 서울 법대 후배이자 법무법인 한바다 대표인 한선영이 우영우를 자신의 로펌에 취업을 시키면서 극복된다. 한선영이 우영우를 취업시키는 이유가 순수하지 않고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복선이었지만, 이로 인해 한선영은 우영우의 조력자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영웅신화 서사의 실질적인 조력자는 우영우의 사수이자 시니어 변호사인 정명석으로 봐야 한다. 정명석은 우영우의 능력을 알아보고 그 능력을 펼칠 수 있게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하고 도움을 주는 인물로 극 중에서 실질적인 조력자, 양육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로 인해 “5) 조력자, 양육자를 만나 위기를 벗어남”이라는 서사가 만들어진다.

우영우는 한바다 법무법인 취업 후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을 변호하지만 모든 순간순간이 위기다. 이런 위기는 우영우 본인의 능력과 주변인들의 도움으로 헤쳐 나가지만 한선영이 본색을 드러내면서 우영우의 생모이자 라이벌 법무법인의 대표인 태수미를 몰락시키기 위해 우영우의 출생에 대한 정보를 흘리면서 위기를 고조시킨다. 이것은 “6) 다시 위기를 만남”이라는 서사에 대입된다.

우영우의 생모인 태수미는 우영우가 자신의 딸임을 알게

되고 결국 스스로 모든 욕심을 내려놓는다. 태수미의 몰락을 원했던 한선영도 우영우의 순수함에 자신의 야욕을 접게 됨으로써 위기는 봉합된다. 내용상으로는 태수미와 한선영의 결단으로 위기가 극복되지만 그 중심에는 우영우가 보여주는 순수함과 주변을 따뜻하게 만드는 능력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7) 위기를 투쟁으로 극복해 승리자가 됨”이라는 서사가 완성된다.

영웅신화는 어려움에 처한 영웅이 고난을 헤쳐 나가면서 결국은 추구하는 바를 성취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다는 점에서 보는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대리 만족과 성취감을 제공한다. 이 연구의 사례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또한 이런 성격을 잘 보여준다. 이렇게 영웅신화의 구조를 드라마의 주인공에게 구체적으로 형상화 시키면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주인공의 모습에 영웅의 이미지가 투영되어 시청자의 관심과 호응을 얻게 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일 것이다.

3. 결론

앞장의 전개에서 고대의 신화나 이야기에서 만들어진 영웅신화 구조는 드라마의 장르나 배경에 따라 적절하게 변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웅신화 구조가 적용된 드라마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만은 아니다. 고대의 신화나 이야기에서 만들어진 영웅신화 구조가 현대의 이야기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서사구조의 일부가 변형된 영웅신화 구조를 가지는 드라마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2023년 상반기를 뜨겁게 달구었던 ‘더 글로리’의 주인공 문동은 역시 영웅신화 구조가 다분히 반영된 드라마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다. ‘더 글로리’의 주인공 문동은은 비 정상적인 모친에게 태어나 어릴 때 학폭 피해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복수의 일념으로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을 보내지만 믿을만한 조력자의 도움으로 결국 복수를 완성하고 위기를 극복하여 승리자가 되는 전개 양상은 영웅신화 구조를 그대로 따른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신성한 혈통이라는 부분만 변형되었을 뿐이다. 이런 부분 변형된 서사 전개 양상들까지 포함하여 조사를 한다면 훨씬 더 많은 드라마가 이런 영웅신화 구조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많은 이야기를 분석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구조가 시청자들에게 공감을 얻고 높은 시청률을 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1] 김미라 외 2인. “이상하고 별나지만 가치있고 아름다운”, 한국방송학보 제 36권 6호, p.42, 11월, 2022년.
- [2] 이호은, 권태효. “영웅신화 구조의 드라마 수용 양상”, 커뮤니케이션 연구 제 21권 3호, p.60, 가을, 2013년.
- [3] 최민성. “신화의 구조와 스토리텔링”, 국제어문 제 42집, pp.506-507, 2008년.
- [4] 박찬익. “영화 ‘캡틴아메리카’ 시리즈에 나타난 영웅 캐릭터의 서사구조에 관한 연구”, 디지털산업정보학회 논문지 제 15권 3호, pp.112-113, 2019년.
- [5] 조동일. “영웅의 일생, 그 문화사적 전개”, 민중영웅이야기, 문예 출판사, pp.12-35, 1992년.
- [6] <https://www.nocutnews.co.kr/news/5793766>